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 없길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1일)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기념촬영하는 모습.

‘교류 40년’ 韓日불교, 세계평화 기원하다

한일 · 일한불교교류協,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
불교중흥 · 세계평화 공동 기원해
합동 위령재 · 과거사 참회 재조명
국보 미륵전 앞에 ‘금목서’ 기념식수

김제 금산사=윤호섭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미륵성지를 대표하는 김제 금산사에서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는 6월 13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한일 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2박 3일간 열리는 한일불교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석으로,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지도자들이 국운융성과 양국의 불교중흥, 세계평화를 위한 축원을 올리는 자리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양국이 40차례의 교류를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낸 성과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2005년 당시 일한불교협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의 일본 과거 역사 참회 발표 △2008년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송환 위령제’ 봉행 및 유골 101위 반환 △2009년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여주 신륵사에 ‘인류화합공생기원비’ 건립 △2011년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추도 합동위령법요 봉행 및 성금 1천만엔 전달 등 역사적인 교류 성과를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이렇게 두 나라 불교는 석가세존이 설하신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 교리를 따라 불국토 건설을 위해 매진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이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하기에 더욱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한불교협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4년 만의 재회에 반가움을 표하면서 “다시 한 번 양국 협의회 발족과 대회 개최의 목적, 포교 교화의 실정에 대해 인식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과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했으면 한다”며 “동시에 양국의 우의가 더욱 발전해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 시절 금산사로 대회장소를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임기를 마친 채 법회에 함께한 진안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은 은사인 월주 대종사가 평생 실천한 자비행처럼 양국 불교도 도 자비실천에 앞장서길 희망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미륵신앙 근본도량인 금산사에서 두 나라 스님들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도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한일불교협 부회장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불제자들이 불교의 역할과 소명을 더욱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가 단순한 정례모임이 아닌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적 분쟁과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불교협 상임이사 도각 스님과 일한불교협 부회장 시바타 테츠겐 스님은 각각 축원문과 표백문으로 양국의 친선우의와 교류증진,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등을 발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전일본불교회장 오타니 쵸유 스님은 각각 김대현 종무실장과 오노이 카토 스님의 대독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국보로 지정된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40차 대회를 기념해 금목서를 식수했다. 겨우내 푸른 잎을 선보이고, 향이 가득한 금목서처럼 양국 불교의 교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법회에 앞서 한일불교협 회장 진우 스님은 금산사 미륵전에서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108배를 올렸으며, 이어 화림선원에서 진행된 차담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도영 대종사는 “일본불교는 생활불교로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일한불교협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그동안 일본불교는 장례문화를 대표하면서 생활불교로 자리를 잡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장례 간소화 추세가 심해져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국불교와의 깊은 교류로 많은 것을 서로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금 · 은빛 ‘성불 발원’ 담은 14세기 ‘고려 사경’ 고국으로

문화재청, 6월 15일 환수 ‘묘법연화경 권제6’ 공개

금 · 은니 필사 절첩본 제작
공양 실천 중요성 강조 특징
복권기금 관리지원으로 환수

일본에 소장됐던 700년 전 제작 고려 사경이 국내로 돌아왔다. ‘묘법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실천에 대한 강조가 담긴 사경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과 관리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복권기금으로 추진, 환수될 수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寫經) ‘묘법연화경 권제6’을 공개했다.

가로 1070cm×세로 27.6cm×두께 1.65cm 크기인 ‘묘법연화경 권제6’은 감색 종이에 경전의 내용을 금 · 은니로 필사해 절첩본으로 만든 고려 사경이다. 지난해 6월, 일본의 한 소장자가 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데 성공했다.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한 경전이다. 총 7권 중 제6권에 해당하는 ‘묘법연화경 권제6’은 〈묘법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 실천에 대한 강조를 주 내용으로 한다. 표지에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꽃이 수직으로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은니로 여백없이 그려졌으며 그 위로 사각의 칸을 두어 경전의 제목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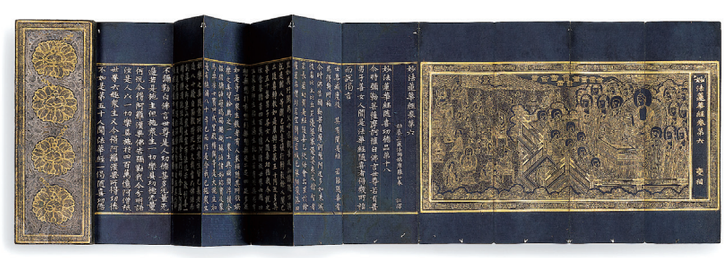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묘사한 변상도는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화면 우측에는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그 권속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에는 사람들이 성내며 돌을 던져도 ‘그대들은 모두 성불하리라’고 말하는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제20품)의 장면, 타오르는 화염 속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제23품)의 장면 등 ‘묘법연화경 권제6’의 내용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다.

특히 화면 우측의 설법 장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화면을 선으로 빼곡하게 채운 점 등에서 14세기 후반 고려 사경의 특징이 드러난다. 총 108면에 걸쳐 이어지는 경문은 한 면당 6행씩, 각 행에는 17자의 글자가 적혀 있으며 금니로 경계를 그리고 은니로 글자를 적은 형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공개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불교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적 가치와 뛰어난 미적 가치를 함께 자랑한다”면서 ”7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문화유산의 공개가 고려 사경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고려인의 바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 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은 경전을 의미한다. 본래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점차 발원을 통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여겨져 널리 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시대에 사경제작이 성행했으며 국가기관인 사경원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빌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본서 환수돼 공개된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